목포 유달산 봄축제 성공개최 준비 '만전'

내일부터 이틀간 '이순신의 선택, 노적봉!' 주제
유달산 도로 전면 통제…4·8만세운동 등 행사 다채

목포시가 유달산 봄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막바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8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이순신의 선택, 노적봉!'이라는 주제로 30-31일 이틀간 유달산과 원도심 일원에서 열린다.

주요 프로그램은 4·8만세운동(플래시몹), 목포 수군 역사를 되짚어보는 목포 만호 수군 출정 퍼레이드, 유명가수와 함께하는 봄꽃 토크콘서트 등이 준비돼 있다.

시는 이번 축제에서 청룡을 찾아라, 거북선 저금통만들기, 노적쌓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이순신 유적지 순례단'을 운영하며, 시의 역사적 자원을 홍보할 방침이다.

목포시는 축제장을 찾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유달산 봄의 정취를 느끼고, 사고 없는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시설 점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유달산 일주도로에서 진행돼 축제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 교통을 통제 할 방침이다. 유달산 일주도로는 30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전면 통제되고, 4·8만세운동 플래시몹이 진행되는 정명여자고등학교에서 트윈스타-태동반점-노적봉까지의 구간은 30일 오전 10시 40분부터 12시까지 일부 도로가 통제된다.

시는 도로 통제로 인한 시민과 인근 상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행사 2주 전부터 주요 지점에 플래카드를 게첨해 사전홍보에 힘썼다.

또한 축제 기간 중 많은 인파와 함께 차량 혼잡이 예상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임시주차장을 이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임시주차장은 혜인여중·고등학교 우정관 옆 주차장, 죽동1 공영주차장, 죽동2 공영주차장, 남교 공영주차장, 중앙식료시장(트윈스타 옆)공영주차장, 신안비치호텔 주차장 등 총 6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목포시가 30-31일 유달산과 원도심 일원에서 유달산 봄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목포시 죽교동 라이온스동산에 벚꽃이 만개한 모습. 〈목포시 제공〉

한편, 지난해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유달초등학교과 목포여자중학교는 각 학교들의 운동장 공사로 사용이 어렵게 돼 처음으로 셔틀버스를 도입, 교통 혼잡을 빚었던 구간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한다.

셔틀버스는 신안비치호텔에서 출발해 온금근린공원 건너편 유달동 행정복지센터 건너편 유달산우체국-초원샤르망 아파트 앞까지 30분 간격으로 순환운행된다.

강광룡 목포시 관광과장은 "행사장의 안전과 원활한 축제 진행을 위해 유달산 일주도로를 전면 통제하니 시민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한다"며 "유달산을 찾은 방문객들이 목포의 봄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무안군이 최근 필리핀 실랑시청에서 김산 군수와 알스톤 케빈 A. 아날라 실랑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친선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필리핀 실랑시, 친선결연 협약

우수 정책 공유 등 다양한 분야 상호 협력

무안군이 필리핀 실랑시와 친선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28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필리핀 실랑시를 방문한 김산 군수가 실랑시청에서 알스톤 케빈 A. 아날나 실랑시장과 양 도시의 상호발전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친선결연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임동현 무안군의회 부의장, 에드워드 카란자 실랑부시장 겸 의장 등 양 지자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두 지역의 상호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무안군과 실랑시는 지난 2022년 계절근로자 MOU 체결을 통해 농업 분야 파트너로 관계를 맺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왔으며,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두 지역이 가진 역량을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합치되며 친선결연의 결실을 보게 됐다.

친선결연을 통해 양 지자체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수한 정책을 공유하고 농수축산·행정·경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산 군수는 "이번 방문을 통해 실랑시가 지닌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무안군과의 상생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두 지역이 한 단계 도약하는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무안=김상호 기자

강진 '지방세 모범납세자' 수여식

아트팜영농조합법인·이창복 동양실업 대표 선정

강진군은 28일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전남도로부터 '2024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개인에 대한 모범납세자 증명서 수여식을 갖고, 지방세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사진〉

대상 요건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지방세를 법인은 2천만원, 개인은 200만원 이상을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됐다.

올해 강진군 모범납세자는 법인은 아트팜영농조합법인, 개인은 이창복 동양실업 대표가 선정됐다.

모범납세자에게는 모범납세자 증서 교부와 세무조사 3년간 유예(법인), 도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 편의가 제공된다.

강진원 군수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준 군민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가 우대 받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완도군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1단계 추진"

2027년까지 총 153억 투입…77해안도로 인근 개발

완도군은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 1단계 사업 추진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은 2032년까지 10여년 동안 총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 '해안 도로 관광 경관 명소화 사업'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153억원을 투입해 서부권 77해안도로에 조성된 미소공원, 갯바람공원, 일몰공원에 관광 안내소와 미니 도서관, 간이 캠핑장 등을 조성한다.

완도수목원과 청해포구 해신 세트장을 잇는 길에는 수려한 해안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해안 데크 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전남도 투자 심사를 통과한 후 기본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군은 방문자 센터 건립 및 해안 데크 길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군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관광객 유입 효과는 물론 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한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융합해 해안도로 관광 경관 명소화 사업이 완도가 남부권 해양관광 중심지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완도=윤보현 기자

해남군 '스마트 수돗물 관망 구축' 속도

총 35억 투입…공급 전 과정 ICT 접목
실시간 수질 감시·오염물질 자동 배출

해남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이 올해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해남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총 35억원을 투입해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시켜 상수관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수질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최첨단 통신 인프라를 활용한 스마트 물관리가 핵심으로, 수돗물 공급의 모든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해 주기적인 관망 유지·관리로 수질 사고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게 된다.

그간 상수도관을 한번 매설하면 다년간 관로를 내부 세척 없이 사용하면서 수질 악화는 물론, 수도관 내구성이 취약해져 누수 사고 등 발생이 우려돼 왔다.

사업이 완료되면 실시간 수질 감시와 함께 관로 내부에 침투된 이물질 감지와 오염물질 자동배출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관 세척을 통해 관 내부의 침전물을 제거해 더욱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규모 유량·수압 감시 등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수돗물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실시간으로 수질을 감시하는 수질계측기, 재염소 투입설비, 이상 수질 발생 시 탁수를 자동으로 배출하는 자동드레인, 수도관 내부를 세척해 수도사고를 예방하는 관세척 인프라 구축 및 설치 등이 이뤄진다.

해남군 관계자는 "연내 사업을 마무리해 수돗물 공급 과정에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켜 군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영광 청년센터, 스타강사 양성 역량강화 교육

영광군 청년센터는 "최근 관내 강사 15명을 대상으로 '스타강사 역량강화 집합교육'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이번 교육은 '스타강사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강사들의 실무 능력과 자질 향상, 강의 질 개선을 목표로 개설됐다.

교육 내용은 '강사의 신뢰감을 높이는 보이스 트레이닝'을 주제로한 스피치 교육 및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과 다양성 관리'라는 주제로 양성평등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강사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강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어 좋았다"며 "다른 강사들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강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성문 영광군 청년센터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강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들에게 더욱 양질의 강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 청년센터는 스타강사 양성사업을 비롯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청년센터(061-351-2112)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김동규 기자

'영암왕인문화축제' 팡파르

현대·전통美 살린 개막 공연·최초 야간 퍼레이드 등 다채

2024 영암왕인문화축제가 화려한 서막을 열었다. 〈사진〉

영암군은 28일 "올해 영암왕인문화축제에서 전통과 현대의 가치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영암의 문화와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개막식의 시작을 알린 식전행사에서는 성향예술단의 전통 국악공연이 진행됐다. 전통 국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 공연은 관객들에게 감동과 여운을 선사해 축제 시작의 의미를 더했다.

식전공연이 끝나고 고향사랑기부제와 군민장학금 기탁식이 진행됐으며, 학산면 출신 현의송씨의 왕인상 수상, 김한남 향토축제추진위원장의 개막 선언 후 축제성공기원 세레모니가 이어졌다.

영암왕인문화축제 최초로 야간에 진행된 왕인테마퍼레이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은 영월관 앞에서 출발, 목적지인 상대포역사공원까지 화려한 행진을 펼쳤다.

이번 퍼레이드는 전통과 미래의 조화, 구림마을 대동계의 유지를 받들어 지역사회의 단결과 화합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퍼레이드의 종착지인 상대포역사공원에서는 실경산수공연 '월인천강'이 열렸다.

월인천강은 상대포의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배경으로 영암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아름답게 나타냈다.

한편, 29일 오후 6시30분부터는 로이킴과 경서의 봄설레임 콘서트와 영암군 최초의 낙화놀이 '낙화유수'가 진행된다. /영암=나동호 기자